

등골나물 꽃밭

초가을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등골나물은 일본에서는 가을을 대표하는 칠초(七草)의 하나로 간주되어 많은 미술작품과 와카(일본 전통 정형시) 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등골나물은 향낭이나 향으로서, 또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말린 것은 여러 가지 병에 효험이 있는 한약으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절멸위기종

현재 등골나물은 교토부에서 절멸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야생 등골나물을 만나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라노에서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걸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밭에 특별히 재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역에는 등골나물에 더해 싸리, 마타리, 범부채, 패랭이꽃, 곱향, 물옥잠, 도라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등골나물과 왕나비

등골나물 꽃이 피면, 꽃에는 다양한 곤충이 몰려듭니다. 일본에 유일하게 찾아오는, 철따라 이동하는 나비인 왕나비(*Parantica sita*)는 특히 등골나물 꽃꿀을 좋아합니다. 가을이 되면 왕나비는 홋카이도 등 시원한 곳을 출발하여 도중에 각지의 꽃밭 등을 ‘휴식처’로 삼으면서 1,500~2,000km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커다랗고 빛깔이 고운 왕나비는 등골나물의 열은 보라색 꽃과 잘 어울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등골나물 축제

추분(9월 22일 또는 23일)에 가까운 주말에 오히라노에서는 등골나물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축제에서는 등골나물 향낭, 쑥 경단, 그 외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작은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늘어섭니다.